

양구 상무릉리·월명리에 현수교 건설 접경·도서지역 개발사업 895억 지원

행안부 국가균형발전회계 투입

양구 상무릉리, 월명리에 현수교가 건설되는 등 올해 도내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895억원이 지원된다.

행정안전부는 18일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에 올해 신규사업 113개를 포함, 모두 275개 사업에 2,580억원 투자한다고 밝혔다. 도내의 경우 68개 사업, 895억원이 지원대상으로 선정됐다. 특수상황지역 개발은 지리적 여건과 각종 규제로 상대적으로 낙후된 접경·도서지역을 지원하

기 위해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를 투입하는 사업이다.

이에 따라 양구군 양구읍 상무릉리, 월명리에 2021년까지 350m 규모의 현수교가 설치된다. 총 사업비는 98억원으로 올해 50억원이 지원된다. 또 철원·화천·인제·고성에 지역 복합커뮤니티센터가 조성된다. 관광·지역자원 개발 분야의 경우 춘천에 '떡거리 복합 문화센터'가 조성되는 등 전국 57개 사업에 402억원을 투자한다.

최기영기자 answer07@kwnews.co.kr

상반기 2조4151억원 건설 발주, 업계 별드나

 **코로나19 함께 극복합시다**

**계절적 요인에 코로나19 겹쳐
민간분야 수주 급감 업계 위축
도·공공기관 조기발주 숨통 기대**

강원도내 건설업계가 코로나19를 극복하기 위한 건설예산 조기발주를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도내 건설예산 2조 4000억여원이 상반기내 집행돼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

도가 발표한 '2020 건설공사·설계용역 발주계획'을 보면 올해 도내 64개 기관의 발주액 3조1033억원(4380건) 중 78%인 2조4151억원이 오는 6월까지 조기발주될 예정이다. 이 가운데 전체의 절반 규모인 1조4960억원(48%)은 3월내로 발주가 완료돼 코로나19로 위축된 지역 경제활성화와 건설업계에 호재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내 건설업계는 겨울철 계절성 요인에 코로나 19까지 겹치면서 민간분야 건설수주가 급감하는 등 힘겨운 시기를 보내고 있다. 지난 1월 도내 건축허가면적은 전년 동월대비 36.8% 줄었

고 건축착공면적은 71.9% 급감했다. 하지만 도와 도내 공공기관들이 코로나 19 극복을 위한 조기발주를 결정하면서 도내 건설업계도 숨통이 트이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발표한 '3월 중소기업경기전망조사'에서도 건설업의 3월 경기전망지수(SBHI)는 110.7로 전월(75.0) 대비 35.7p, 전년 동월(92.9) 대비 17.8p 상승했다. 지역 건설업계는 이에 그치지 않고 정부와 대형 공기업 등에서 발주하는 대형 SOC 예산, 조달청 시설공사 등도 조기 발주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조달청의 시설공사 입찰의 경우 지

난해 262건 6080억원 중 지역제한·지역의무공동도급비중은 84%(5110억원)에 달해 조기발주와 지역할당 입찰을 늘리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대한건설협회 강원도회 오인철 회장은 "건설예산 조기발주는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일용직 근로자 등 경기침체 때마다 어려움을 호소하는 건설업체 종사자들에게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지역 건설업체들이 참여하는 제2경춘국도, 포항~동해 동해선 단선 전철화 사업 등 대규모 SOC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조기 착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호석·권소담